

전주시의회 현실성 없는 정책 주문 남발

김진옥 의원 “자전거 전용차로 지정 운영 제안”

전주시의회 시정질문의 의원들의 현실성 없는 정책 주문이 남발되면서 민혹을 사고 있다. 시의원들이 전주시의 재정여건을 무시한 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전시성 사업들을 제안, 행정력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진옥 의원(송천2동·팔복동·조촌동·동산동)은 8일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자전거 전용차로 지정 운영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전주시가 조지개편을 통해 기존 자전거정책팀을 자전거정책과로 승격시켜 기존의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생태교통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 기조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우선 사범지역으로 기린대로(팔복동 추천대교에서 병무청까지)에 자전거 전용차로

를 설치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승수 시장은 “전주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곡시외와 호천지구 등 신도시개발지구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우선 구축 할 계획”이라며 자전거 전용도로 정책 제안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김 시장은 또 “김 의원이 자전거 전용도로 지정을 제안한 기린대로는 일일 통행량이 2천대 이상으로 관할 경찰서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고, 일부 구간이 버스 전용차로로 운영되고 있어 자전거 우선차로를 바로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같은 김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한 전격적인 제안에 이은 김승수 시장의 긍정적 답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좋지만 전주시의 한정된

예산과 대중교통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성 사업에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 제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동일한 도로구간을 공유하는 유형의 도로를 말한다.

기존 자동차도로(하루 평균 교통량 2000대 이상)에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하려면 교통량과 속도 등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명분에 매몰돼 시민들의 교통편의는 무시한 정책 제안이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전주시 한 공무원은 “시의원들이 전주시의 재정현황에는 무심경한 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전시성 사업 제안으로 이틀값만 올리고 보자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일부 시의원들의 현실성 없는 사업 제안으로 행정력을 허비하고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대병원 방사선센터 S등급 평가

전북대병원(병원장 강명재) 방사선비상진료센터(센터장 핵의학과 손명희 교수)가 한국원자력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센터장 진영우)에서 시행하는 2016년 전국 22개 지정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한국원자력학원 국가방사선진료센터는 매년 전국 22개 지정기관

의 운용실적과 역량을 바탕으로 S, A, B, C 등 네 가지 등급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를 통해 전북대병원은 전북도에 인접한 한빛(영광)원자력발전소 비상사고 혹은 도내 방사성 물질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기관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탄소사업 관련 창업기업 육성

초창기 기업들 역량 강화 43개 기업 대상 창업 교육

전주시가 미래먹거리인 탄소산업 관련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초창기 병아리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창업보육센터는 8일과 9일 이틀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창업맞춤형사업에 선정된 4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창업자교육은 탄소기본기술교육, 마케팅교육, 비즈니스모델(BM) 교육 등을 통해 각 기업별 사업의 목표 설정과 성과 구축을 지원하고, 정확한 전략수립과 마케팅 강화로 기업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다인스 등 43개 창업맞춤형 참여

기업과 창업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첫날 윤재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고기능수지연구실장의 탄소기술 기본교육과 배도제 한국마케팅연구소장의 창업기업 마케팅전략수립, 온라인마케팅 실습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둘째 날인 9일에는 비즈니스모델(BM)구축 및 창업컨설팅 전문가인 조인석 예원대 창업대학원 교수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창업맞춤형사업(탄소B2C 기업 창업맞춤형사업)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총 40억원을 투입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자금 지원과 멘토링, 시장진입 등을 지원,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탄소부품소재 관련 창업 3년 미만 기업으로, 기술원은 1차적으

로 창업기업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 각 기업별로 시장전문가를 매칭해 아티팩트 개발과 시장연계 등을 돕고 있다. 이후, 2단계 사업으로 참여기업에 기업당 2500만원~30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해 시장개척과 제품개선, 시제품제작 등의 과제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와 기술원은 탄소복합재 예비창업자와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탄소복합재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지원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18년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을 통해 매년 탄소부품소재 관련 초기창업기업 25개사 정도를 선정해 탄소부품소재 설계와 디자인, 성형기술, 마케팅 지원 등 시제품 제작에서 상용화에 이르는 R&D를 적극 지원, 벤처창업기업들을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향토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사료업체 특혜 이권식 김제시장 법정구속

관급사업 추진 과정에서 본인의 선거운동을 도운 특정 사료업체에게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이권식 김제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진순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선고 결과에 따라 전주교도소로 구속 수감됐으며, 직무가 정지됐다.

이 시장은 판결결과에 불복하고 7일 이내에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씨(62·구속)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 14억 6,000만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으로 정식 업체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요 없는 물품을 사적인 이념에 얽매어 사들이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정구속이 맞다고 생각되고 자치단체장이라도 예외로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보고대회 개최

전주시가 고향을 떠나 전주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친정부모 역할을 토크하고 있다.

시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는 8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다문화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추진했던 사업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사업보고대회는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결혼이주 여성의 페루 전통 노래와 악기 깨나 공연, 필리핀 이주여성 네 명으로 구성된 필리핀 전통민속춤 풀가방 공연을 시작으로, 2016년 사업성과 보고 및 동영상 상영, 한국어 교육 우수자 및 센터 프로그램 적극 참여자에 대한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국어 집합교육 참여자들이 각 반별로 준비한 합창과 연극, 동화구연 등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다문화가족으로의 소속감을 확인하고, 방문교육 지도사들도 준비한 패션쇼를 선보이며 화합의 시간을 함께했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자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다문화가족이 지역의 주체이자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아가,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초기 지원에서 출발해 사회경제적 진출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겨울철 생활 폐기물처리시설물 안전점검

소각장·매립장 등 7곳

전주시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각종 생활 폐기물처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전주시는 폭설과 시설물 동파 등 겨울철 자연재해를 대비해 지난 5일부

터 오는 9일까지 소각장과 매립장, 종합리사이클링터 등 폐기물처리시설 7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7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광역 1·2폐기물매립장과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종합리사이클링터(음식물사

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4개 처리시설에 대한 토목과 전기, 기계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또 현재 사용은 종료됐지만 사후관리중인 소형(호동골)매립장과 서신·효자 대체매립장도 침출수 누출여부와 저류조 시설물 작동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